



# AICIC에서 책·과·음·악



문화전당 24~25일 2色 행사

### 아시아북페스티벌

애플나무·유명인 추천 도서  
은희경 등 유명작가 강연회  
찾아가는 캣왕성 유랑책방  
독립책방 참여 애플빌리지  
라이브러리파크 일대서

### 월드뮤직 페스티벌

스페인 플라멩코 팝가수  
모로코 등 11개국 18개 팀  
재즈·살사·집시·7080 K팝  
푸드존·마켓라운지도  
문화전당 극장1·복합1관서

월드뮤직의 매력에 빠지고, 좋아하는 책도 읽고.

오는 24~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굿직한 두가지 문화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상복)가 주관하는 '2018 ACC 아시아북페스티벌'이 문화전당 라이브러리파크 일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책으로 구성된 아시아 책나무, 유명작가의 강연회와 사인회, 명사들의 추천도서, '찾아가는 이동책방-캣왕성 유랑책방' 등 다양한 이벤트가 어우러진 행사다.

연극 및 영화 미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상호 작가가 직접 제작한 '아시아 책나무'는 라이브러리파크에서 소장하고 있던 다양한 아시아 관련 전문 도서들로 구성된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시아 정취를 담은 아카이브 소품들도 아시아책나무 주위에 전시돼 관람객들이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다. 또 저녁에는 조명이 밝게 빛나는 소원나무 역할도 한다.

북라운지에서는 내이비 게스트 '지시재, 지금의 나를 만든 서재' 아시아면 전시기 개최되며, 관람객들은 소설가 한강, 영화감독 박찬욱, 미술평론가 유홍준, 디자이너 안상수, 방송인 김계동 등 유명인사가 추천한 아시아 주제 도서 49종을 만날 수 있다.

유명 저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작가 강연회 및 사인회'도 이틀에 걸쳐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소설가 은희경, 여행작가 채지



오는 24~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2018 ACC 아시아북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책 전시와 유명작가의 강연회·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북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찾아가는 이동책방-캣왕성 유랑책방'. <문화전당 제공>



스페인 카르멘 파리스·모로코 나빌라 만(왼쪽)과 헝가리 밴드 '손도르고'.



김택환 작가



은희경 작가

형, 시인이자 소설가 김형수, 생태동화작가 권오준 등이 참석해 아시아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25일에는 소설가 김택환, 문학평론가 김응교와의 만남이 펼쳐지며 미우·유철화·한기화 등 동화책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 대표 독립책방 9곳(공백, 라이프, 삼삼한책방, 소년의서, 동네책방, 연지책방, 타인의 책, 지음책방, 책과 생활, 파종모중)과 그림책연구회의 상설 프로그램이 참여한 아시아책빌리지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2018 책의 해 '찾아가는 이동책방-캣왕성 유랑책방'도 운영된다. '캣왕성 유랑책방'은 다섯 마리의 우주고양이(달, 눈, 라옹, 몬드, 팡이, 들레)가 특별한 사연을 품고 지구로 와 책방을 하며 지구를 떠돌다'는 스토리를 콘셉트로 운영하는 책방으로 지난달 흥대 앞에서 첫 책방을 열었다. '캣왕성 유랑책방' 안에 꾸며진 아시아의 책들도 보고, 앞마당에서 열리는 커피, 음반, 굿즈 등 셀러들의 작은 마켓도 열린다. 이동책방은 26일까지 운영된다.

이밖에도 라이브러리파크에서는 스트

리아트, 스탬프투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acc.go.kr/board/schedule/event/21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이하 월페)도 24일과 25일 이틀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과 복합1관에서 열린다.

이번 월페에는 스페인과 모로코, 헝가리와 세르비아, 라트비아 등 유럽과 인도, 일본 등 11개국 18개팀이 참여한다. 재즈를 만난 플라멩코, 살사밴드, 인도와 한국 뮤지션의 실험적인 창작음악 등 올해도 독특하고 새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세계적 명성의 스페인 플라멩코 팝가수 '카르멘 파리스'와 모로코 대표 가수 '나빌라 만'이 함께 무대에 서고, '손도르고'는 헝가리 민속음악과 집시음악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발칸반도의 강렬한 비트와 유럽재즈를 결합한 세르비아의 '네이크드', 플라멩코재즈의 진수를 들려줄 스페인인 '아우로라'도 관객을 기다린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더튼', '장단DNA', '잡미

나이'와 신예 지역아티스트 8팀도 출연한다.

월페 주요 무대 곳곳에서는 해외 우수 음악축제 감독의 월드뮤직 강연이 열리고 7080 한국 팝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푸드존과 마켓라운지 등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있다. 자녀와 함께 오는 가족 관객을 위해 어린이문화원에서 '어린이뮤직캠프'도 열린다. 무료 관람. 문의 062-601-40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태풍 영향 빅도어시네마 취소

22일과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리기로 했던 '빅도어 시네마'가 태풍 예보로 취소됐다. 문화전당은 21일 "문화전당의 극장1 '빅도어'에서 이틀간 영화 '워플래쉬'와 '브라보! 재즈 라이프'를 상영하기로 했으나 태풍 솔릭 예보로 인해 취소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601-4011. /백희준 기자 bhj@

## 시우시작

(始友始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광주미술협회(회장 박수봉)는 23일부터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시우시작(始友始作)'전을 개최한다. '시우시작(始友始作)'은 기대되는 젊은 작가들의 첫 전시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광주미술협회 청년분과에서 기획한 '시우시작'전은 현재 작가로 활동 중인 광주미술협회 청년 작가들과 전담대, 조선훈, 호남대, 홍익대 등 각 대학에서 기량을 닦고 있는 학부생들이 참여했다.

강희성·조민서·김병준·김선희·김하경·이금주·하승안·김다준·김바다·정희수 등

광주미협, 젊은 작가들의 첫 전시  
23~29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김하수 작 '정류장'

24명의 작가는 각자의 개성이 담긴 서양화, 한국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미협은 앞으로 '시우시작'전을 매년 개최할 예정이며 기획전 이외에도 젊은 작가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의 062-222-3574. /김미은 기자 mekim@



한승희 작 'Remember 06'



김선미 작 'Bouquet'

### 다채로운 여성의 얼굴

김선미·한승희·김무아  
31일까지 화순 도 갤러리

그녀들이 화폭에 풀어놓은 여성의 얼굴은 다채롭다. 꽃장식을 머리에 꽂은 화사한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족을 살릴 힘 보살피는 엄마이자 아내의 여유로운 얼굴이기도 하다. 또 삶의 고민들을 담고 있는 고독한 모습도 보인다.

서양화가 김선미, 한승희, 김무아 등 세 명의 여성 작가가 함께한 '여성의 얼굴전'이 31일까지 화순 도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선미 작가는 다양한 표정의 여성의 모습을 모래를 활용해 배경을 만든 후 화려한 색감으로 그려냈다. 김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를 거쳐 전남대 미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광주시미

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승희 작가는 조각보를 함께 덮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 함께하는 여성의 얼굴을 담았다. 특히 유리 위에 그린 그림들은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승희 작가는 조선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남농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다.

김무아 작가는 좀 더 내면의 고민을 끌어낸 여성의 모습을 선보인다. 다소 거칠고 투박한 붓놀림 속에 담긴 얼굴은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고려대 조형예술학과와 홍익대 대학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문의 061-375-1556.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